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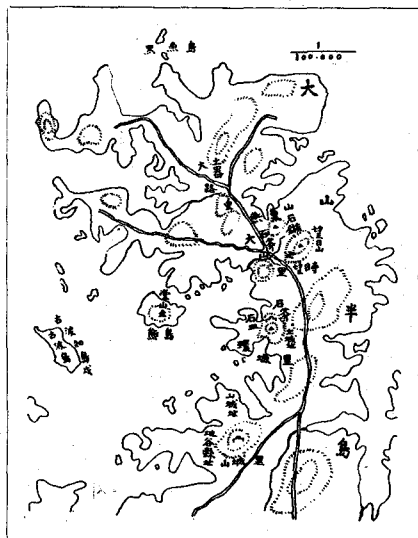
瑞山 大山里 出土 石鏃

李 殷 昌

一

瑞山 高北面에서 立石 三基(1)를 發見하여 美術資料 第三號에 紹介한 바 있거니와 그 後도 繼續하여 瑞山地方에 着眼하여 先史遺蹟을 調査(2)하였다.

瑞山邑 立石洞에서 立石 一基와 公林洞에서 立石 一基를 찾아고 仁旨面 毫堂里와 南井里에서 支石墓群을 發見하였으며 또 高北面·海美面·音岩面·瑞山邑 仁旨面 等地 海岸一帶에서 石斧 石鏃 石刀 石劍 石錘 等 磨製石器類가 多數 採集(3)되었으니 이것으로 淺水灣 海岸一帶에 先史遺蹟이 散在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瑞山의 南쪽 淺水灣 海岸地帶 뿐만 아니라 北쪽 大山半島 海岸地帶에도 先史遺蹟이 散在하여



大山半島遺蹟圖

음을 注視하여야 하겠다. 瑞山邑에서 北으로 約 10 km 地點인 地谷面 山城里에 石築山城址가 있고 이 山城下에 地谷縣 治址가 있다. 이곳에서 다시 約 4 km 地點인 地谷面 環城里에 土城址가 있고 이 附近에서 石斧 一個와 石皿 一個가 出土(4)되었다. 또 이곳에서 다시 約 4 km 地點인 大山面 大山里 燕巢山에서 石鏃 十二個와 石斧 一個가 出土되었다. 本稿에 問題를 삼고자 하는 것이 곧 이 石鏃인바 石鏃 自體의 形態에 있어서도 注目할 만한 資料이지만 石器의 分布 研究上에도 參考가 될 듯 하여 이에 對하여 記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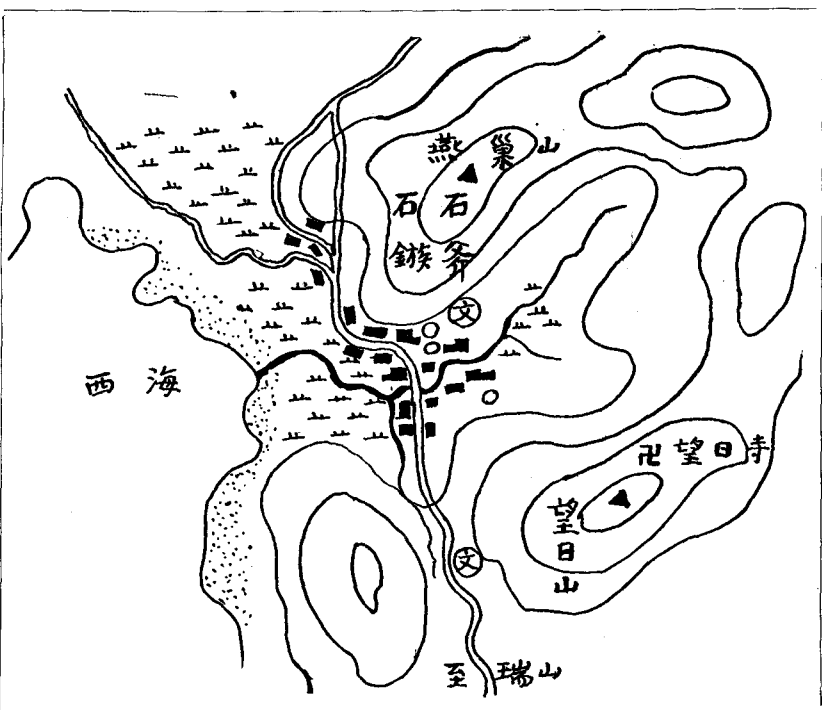
二

1961年 3月 頃에 大山地方에서 石器類가 出土된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調査하였다.

瑞山邑에서 自動車로 總長 28 km의 大山半島를 向하여 左右로 그림과 같은 海邊 風景을 보며 달리다가 18 km 되는 곳에 이르게 되면 大山里에 내리게 된다. 面事務所 學校 支署 銀行 郵遞局 等 官公署를 비롯하여 商店 民家 等 建物들이 集結된 村落 뒤에는 燕巢山이 솟고 앞에는 望日山이 솟아 있는데 이 燕巢山과 望日山이 南北으로 相對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大山里 低地를 끼고 있다. 低地는 西便으로 漸次 낮은 三角平地를 形成하며 기울어져 나가다가 熊島안으로 깊이 灣入해은 海邊에 臨하여 있는데 그 大部分은 田畝으로 되었고 그 가운데로 河川이 흘러 바다로 注入된다.

燕巢山은 山이라야 둥그스름한 丘陵을 形成한바 東은 더욱 높은 高嶺으로 막히고 南으로는 地谷·聖

淵·瑞山 等地로 繼續되는 高低 連峰이 웃줄웃줄하며 北으로는 半島가 더 延長되는 小丘陵이 連續되며 西는 바다로 열리고 熊島가 눈앞에 보인다. 山 一帶를 살살히 調査하였으나 이렇다 할 만한 遺跡이나 資料를 얻지 못하였고 나무 없는 사태난 山에 石英質 차돌이 즐비하며 處處에서 年代 未詳한 土器片 또는 磁器片이 間或 散見되었고 이곳 住民을 通하여 既往에 石鏃 石斧 등이 出土되는 例가 있었다는 것을 傳聞하였을 뿐이다.



大山里 遺蹟略圖

燕巢山에서 出土된 問題의 石鏃이 大山高等公民學校에 保管되었으며 또 石斧 一個가 大山國民學校에 保管되어 있어서 이 實物에 接하여 調査(5)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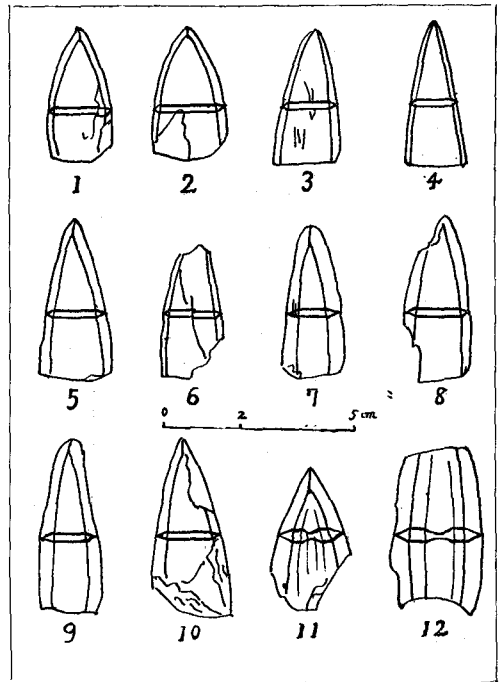
三

石鏃은 洪水後 燕巢山 西南斜面 地表에서 大山高等公民學校에 在學하는 學生에 依하여 採集된 것으로 無莖式 三角形 石鏃과 逆刺式 三角形 石鏃이다. 總 十二個中 前者에 屬하는 것이 十個요 後者에 屬하는 것이 二個인바 以外 또 破片 四個가 出土되었다.

順番	石鏃形式	石質	製法	數 值			備 考
				長	幅	厚	
1	無莖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3.4cm	1.7cm	0.3cm	完存
2	無莖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3.4cm	2.0cm	0.2cm	〃
3	無莖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3.6cm	1.7cm	0.3cm	完存
4	無莖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3.8cm	1.5cm	0.2cm	完存
5	無莖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4.3cm	1.9cm	0.2cm	完存
6	無莖式三角形石鏃	灰青色頁岩	磨製	3.4cm	1.6cm	0.15cm	鋒端部와 下底部가 破缺
7	無莖式三角形石鏃	綠灰色泥板岩	磨製	4.0cm	1.6cm	0.3cm	完存
8	無莖式三角形石鏃	白色斑點이 있는 灰青色頁岩	磨製	4.3cm	1.7cm	0.2cm	鋒端部와 下底部가 破缺
9	無莖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4.4cm	1.7cm	0.2cm	完存
10	無莖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4.8cm	2.0cm	0.2cm	下底部가 破缺되고 研磨疎忽함 —(無莖式石鏃中 最大의 것)—
11	逆刺式三角形石鏃	白褐色泥板岩	磨製	3.7cm	2.0cm	0.5cm	下底部로 切半이 破缺됨
12	逆刺式三角形石鏃	黑色粘板岩	磨製	4.2cm	2.4cm	0.4cm	鋒端部 破缺됨

(1) 無莖式 三角形 石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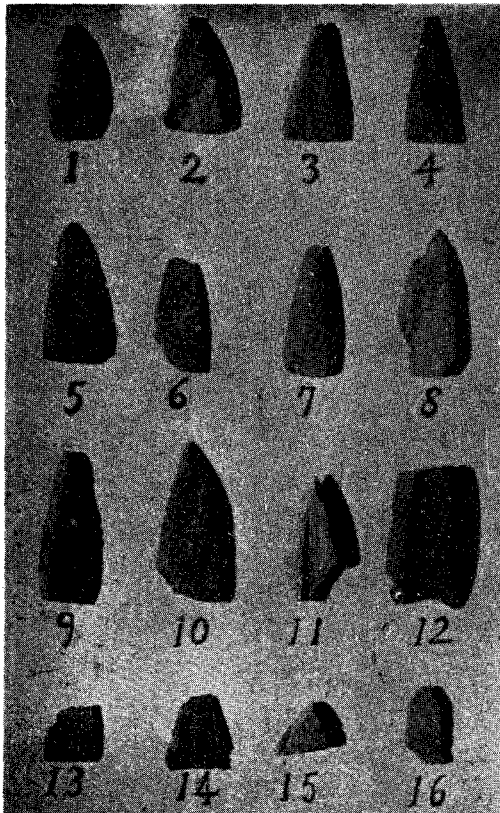
無莖式 三角形 石鏃은 모두 10 個인바 그 形態는 扁平한 無莖式 三角形으로 되었으며 若干 等큰맛을 주는 短鏃身(實測圖 1.2, 寫眞 1. 2)과 길죽한 長鏃身(實測圖 4, 5. 9. 10 寫眞, 4.5. 9. 10) 等으로 區分할 수 있고 左右로 刃線을 내어 鋒端을 銳利하게 만들었으며 下底는 直線으로 處理하였다. 石質은 黑色 粘板岩이 그 大部分이고 灰青色 頁岩 또 綠灰色 泥板岩도 있다. 모두 磨製인바 그 研磨는 그리 精巧한 便은 아니고 얇게 打整된 自然石을 左右刃만을 研磨한것 鏃身의 凸部만을 大概 같이 整齊한 것이니 比較的 疎忽한 研磨法이다. 石鏃 10 個가 모두 그 數値를 달리하여 最小長 3.4cm 로 부터 最大長 4.8cm 까지 있으며 그 厚는 0.2cm 부터 0.3 까지이나 大部分이 얇다.



(2) 逆刺式 三角形 石鏃

燕粘山 出土 石鏃 12個中 前記 無莖式 三角形 石鏃 10

燕巢山 出土 石鏃 實測圖



燕巢山 出土 石鏃 및 破片

個를 除外하고 나머지 2 個가 곧 逆刺式 三角形 石鏃에 屬하는 것인데 其中 11 番 石鏃과 12 番 石鏃과는 石質 또는 製法에 서로 달라 特異한 點이 있다.

11 番 石鏃……白褐色 泥板岩 磨製로 扁平한 逆刺式 三角形 石鏃인바 中央에 溝條가 있고 左右刃로 形成되었으며 鋒端部가 銳利하다. 現存하는 數値는 長 3.7cm, 幅 2.0cm, 厚 0.5cm 로 下底部가 大破되어 그 實長이 未詳하며 底邊構造가 궁금하다. 後述코자 하는 12 番 石鏃의 例로 보아 안으로 굽어들어 彎曲線을 이룬 것으로 推定되며 精巧한 技法과 精密한 研磨 等으로 參考가 된다.

12 番 石鏃……黑色 粘板岩 磨製인바 前者 11 番 石鏃과 同一 樣式系의 것으로 곧 扁平한 逆刺式 三角形 石鏃이다. 中央에 溝條가 있고 左右刃로 되었으며 鋒端部가 大破되어 그 構造를 모르겠고 下底部는 左右 兩刃線이 안으로 줄어들고 底邊이 半月形으로 굽어들어 엮혀 있는 形態를 보인다. 現存 數値가 長 4.2cm 幅 2.4cm 厚 0.4cm 로 元來는 相當히 큰 것으로 推定되는데 燕巢山 出土 石鏃中에서 最大의 것

이다.

(3) 石 鏃 殘 片

寫眞 13. 14. 15. 16은 石鏃 製作 殘片인 石屑과 또는 石鏃 破片인데 13. 14는 既成品의 破片이라기 보다 製作途中의 失敗物인 것 같고 15는 既成品의 破片으로 鋒端部이며 16은 石屑인바 모두 前述한 無莖式 三角形 石鏃과 同一系의 것으로 推定된다.

(4) 磨 製 石 斧

石斧는 石英質 차돌을 利用한 磨製石斧인바 打整에 依하여 大體的인 石斧形態를 形成하고 다시 全身을 研磨하여 만드는 過程을 밟은 것으로 推測되는바 斧身의 研磨에는 若干의 粗磨도 認定되나 兩刃의 研磨만은 極盡하여 現今도 光澤이 顯著하며 銳利한 刃線을 보이고 있어 그 製作技術이 進歩된 것이라 하겠다. 完全한 狀態로 出土되었으니 그 全長이 15.6cm 頭部幅이 3.8cm 刃部幅이 4.8cm 厚가 4.4cm로 頭部의 橫斷面이 橢圓形이고 刃部는 蛤尻로 되어 있으며 頭部와 刃部の 兩端은 斜아늘고 가운데가 볼록 하여 곧 膨脹度가 強한 엔타시스式의 圓柱形 石斧를 形成하였다. 이는 研磨法으로 보나 또는 形態上으로 보나 精巧를 다한 石斧요 또 단단한 石材를 採用하여 實用的인 效能을 얻은 點도 그 特色의 하나이며 材料를 出土地인 燕巢山에서 直接 求하여 (燕巢山은 이 石斧의 石材와 같은 차돌이 많음) 當地에서 製作하여 使用하였다는 點도 特記하여야 하겠다.

四

却說 燕巢山 出土 石鏃中에서 壓倒的으로 多數를 차지한 無莖 三角形 石鏃이나 또는 逆刺 三角形 石鏃의 形態는 磨製石器 以前의 打製石鏃에 比喩할 수도 있으니 일찍이 咸鏡北道에서 出土된 黑耀石의 打製石鏃中에 無莖 三角形이 適用(6)되었고 또 會寧郡 碧城面 永綏洞 煙臺峰 出土 打製石鏃中에도 底邊이 안으로 굽어든 逆刺 三角形의 類例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燕巢山 出土의 無莖式 三角形 石鏃과 또 逆刺式 三角形 石鏃이 磨製石鏃의 新案이라기 보다는 打製石鏃에서 發展하여온 곧 過去를 踏襲한 形態에 研磨法을 加하여 精巧한 石鏃으로 進一步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燕巢山 出土 石鏃이 磨製石鏃이라 하더라도 南韓 各地에서 出土例가 많으며 金石併用期 先史遺跡地에서 많은 出土例가 있는 兩尾式 三角形 石鏃·有莖式 柳葉形 石鏃·有柄式 柳葉形 石鏃보다 古制에 屬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 有莖式 柳葉形 石鏃과 有柄式 柳葉形 石鏃等에는 支石墓의 假器的인 副葬品으로 石劍等과 같이 伴出하는 例가 많은데 對하여 燕巢山 出土 無莖式 三角形 石鏃·逆刺式 三角形 石鏃等은 實用的인 遺物로서 그 出土例가 많으니 이 燕巢山 出土 石鏃類는 有莖式 또는 有柄式의 磨石鏃類보다 事實上 先行樣式(7)으로 볼 수 있겠다.

燕巢山 石鏃과 같은 出土例와 그 使用例는 他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곧 礫石을 打整하여 만든 礫器主體石器文化를 形成한



燕巢山 出土 石斧

7. 兩尾式 三角形 石鏃은 그 研磨와 製法이 精巧하여 相當히 發達한 것으로 無莖式 三角形 石鏃보다는 뒤진 것으로 實用的인 製品인 것 같다. 그 出土例로는 既往에 ①서울 鷹峰遺跡址(鄉土 서울 第一號 金元龍 「石器時代の 서울」) ②慶州附近(1922年度 古蹟調査報告 圖版第7)에서 出土되었고 ③最近에는 廣州 明逸里 住居址(古文化 第一輯 金廷鶴 「廣州 明逸里 住居址 發掘報告」)에서도 出土되었으며 筆者가 瑞山 仁旨面 毫堂里·南井里(考古美術 第三卷 第九號 拙稿 「瑞山地方의 先史遺跡發見」)에서도 이러한 兩尾式 三角形 石鏃을 採集한바 있다. 有莖式 柳葉形 石鏃과 有柄式 柳葉形 石鏃은 그 研磨와 製法이 더욱 精巧를 期하였고 그 長이 10cm 乃至 20cm 餘에 達하고 있어 細長한 것으로 前者 兩尾式 三角形 石鏃보다도 뒤진 것이며 그것은 實用的인 用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假器的인 副葬品에 屬하는 것으로 大部分은 支石墓下에서 石劍과 같이 伴出된다. 出土의 類例로 ①洛東江岸地方(杉原長太郎氏 蒐集品圖錄)·大邱 大鳳洞 支石墓(1924年度 古蹟調査報告 「大邱 大鳳洞 支石墓 調査」) 永洞 榆田里 支石墓(歷史學報 第十二輯 金元龍 「永洞 榆田里 支石墓의 特異構造와 그 副葬品」)·青陽 大平里 支石墓(考古美術 第三卷 第五號 拙稿 「青陽 大平里 出土石器」) 등에서 出土例가 있고 最近에 大德郡 五里(考古美術 第三卷 第八號 拙稿 「大德郡 先史遺跡 調査」)에서도 이러한 따위의 石鏃 數個가 出土된바 있어 筆者는 이를 調査한 일이 있다.
8. 歷史學報 第十四輯 金元龍 「廣州 漢沙里 櫛文土器 遺跡」
9. 歷史學報 第十七·十八輯(東濱 金庠基教授 華甲記念史學論叢) 金元龍 「岩寺里 遺跡의 土器·石器」
10. 梅原·藤田著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圖版 第三二 「全羅南道 小鹿島 出土 一括遺物」 및 同 解說參照
11. 朝鮮古蹟研究會刊 1922年度 古蹟調査報告 圖版 第七 「慶州 附近 發見 磨製石鏃」
12. 黃義敦先生 古稀記念史學論叢 金元龍 論文 「蔚山郡 下廂面 蔣峴里 出土의 石器·土器」
13. 三國史記 卷三十六 地理條
「富城郡 本百濟基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領縣二 蘇泰縣…中略…地育縣 本百濟知六縣 景德王改名 今北谷縣」 東國輿地勝覽 卷之十九 瑞山郡 古跡條
「地谷廢縣 本百濟知六縣 新羅改地育 爲富城郡領縣 高麗改今名 仍屬李朝因之」
瑞山郡誌 卷四 史蹟條
「富城山 吐美城 在地谷面山城里 石築圓形 高 六·七尺 徑 約 六十間 瑞山舊誌曰 地谷廢縣 云云…」
14. 地谷縣의 郡名 知六·地育·北谷·地谷等은 모두 異字同音으로 馬韓의 「致利鞠」의 轉音한 것이라는 論說이 있어 魏志 馬韓條에 「馬韓在西…散在山海間 無城廓 有爰襄國…致利鞠國…臣蘇塗國…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辰王治目支國云云…」하는데 關聯되는 것으로 「致利鞠」은 現今 瑞山의 地谷에 該當하고 「臣蘇塗」는 泰安에 該當된다는 것이다.
15. 考古美術 第三卷 第九號 拙稿 「瑞山地方의 先史遺跡發見」 「(一) 支石墓」條